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청소년축구, 오늘밤 남북 대결

亞 U-19 선수권 결승 길목서 7년만에 격돌

6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리는 19세 이하(U-19) 남자 축구대표팀이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을 만났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30분(이하 한국시간) 중국 산둥성 쯔보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북한과 2010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선수권대회 준결승전을 치른다. 남북한의 19세 및 20세 이하(U-20) 대표팀 간 맞대결은 2003년 10월 서귀포에서 치른 친선경기 이후 7년 만이다.

한국은 당시 3-0으로 이겼지만, 역대 전적에서는 1승2무3패로 뒤진다. 두 차례 승부차기 대결 끝에 모두 북한을 꺾었지만 무승부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 11일 숙적 일본에 3-2 역전승을 거두고 대회 4강에 올라 5회 연속 월드컵 출전이라는 1차 목표는 이뤘다. 이번 대회 1~4위 팀은 아시아를 대표해 내년 7월 말 콜롬비아에서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나간다.

북한 역시 8강에서 개최국 중국을 2-0으로 제압하며 2007년 캐나다 대회 이후 4년 만에 FIFA U-20 월드컵 무대에 설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남북한 대표팀 모두 이번 대회에서 최종 목표는 아시아 정상 자리를 되찾는 것이다.

한국이 2002년과 2004년 잇달아 대회 우승을 차지할 때 대표팀 수석코치였던 이광종 감독은 "대회 우승만 생각하고 있다. 1위 아닌 다른 순위는 내게 실패나 마찬가지"라는 말로 정상 탈환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은 올해로 37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서 최다 우승팀(11회)이지만 2004년 말레이시아 대회에서 우승한 뒤로는 정상을 밟아 보지 못했다. 북한은 2006년 인도 대회 이후 4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노린다.

한국은 두 골씩 넣은 최전방 투톱 지동원(전남)과 정승용(서울)을 앞세워 다시 골 사냥에 나선다. 특히 지동원은 AFC와 인터뷰에서 "내 목표는 대회 우승과 함께 MVP(최우수선수)가 되는 것이다. 득점왕도 욕심 난다"고 밝힐 만큼 자신감이 넘친다.

현 대표팀에는 지난해 이광종 감독의 지휘로 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서 8강까지 오른 청소년 대표 출신 9명이 포함돼 조직력도 탄탄하다. 다만 한국으로서는 주장인 중앙수비수 장현수(연세대)가 경고 누적으로 북한과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이 다소 걸린다.

1980년 말부터 1990년 초까지 북한 국가대표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윤정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북한 역시 3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공격수 박성철(3골)이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어 고민이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광저우AG '올인'

18일 조기소집 훈련

24년만에 정상 노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4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오는 18일부터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모여 금메달 담금질을 시작한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소집훈련 시작 날짜를 기존 24일에서 18일로 앞당겨주기로 했다"며 "K-리그 소속 선수들과 조기 소집이 가능한 일부 해외파 선수들을 불러들여 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올림픽 대표팀 선수는 총 20명으로 이 가운데 14명이 국내파(K-리그 13명, 대학선수 1명)이고 나머지 6명이 해외파 선수다.

이에 따라 홍명보 감독은 오는 20일 2010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을 치르는 성남 소속의 국내파 중 홍철과 장석원을 뺀 12명을 먼저 소집하기로 했다.

반면 해외파 선수 중 와일드카드인 박주영(AS모나코)은 애초 구단이 11월 이후에 풀어줄 수 있다는 통보를 해왔고, 기성용(셀틱)은 아시안게임 출전만 허용했을 뿐 대표팀 합류 시기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구단 측과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명보 감독은 우선 J-리그 소속 선수들의 조기 소집이 가능하도록 소속팀 구단 관계자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18일부터 파주NFC에서 훈련을 시작하는 올림픽 대표팀은 오는 29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최종 전지훈련을 치르고 나서 내달 9일 광저우로 떠난다. /연합뉴스

둘이 하나되어 캐나다의 알렉산더 데스파티에(왼쪽)와 루벤 로스가 13일(한국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영연방경기 3m 싱크로 스프링보드에서 환상의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광래호, 이젠 아시안컵 우승

한·일전 답답증 풀고

12월 24일 재소집

숙명의 한·일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올해 A매치 일정을 모두 끝낸 축구 대표팀이 오는 12월24일 재소집을 앞두고 본격적인 '아시안컵 올인 체제'로 변신한다. 내년 1월7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치러지는 2011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호주, 인도, 바레인과 함께 C조에 속해있다. 약체 인도를 빼면 호주와 바레인이 8강 진출의 경쟁 상대다.

한국은 1956년 1회 대회와 1960년 2회 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이후 지금까지 시상대 정상에 서지 못했다. 51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조광래 감독은 신중하게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선수들의 컨디션 점검이 우선" = 조 감독은 "대표급 선수들의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K-리그 구단들의 협조를 얻어 국내 선수들로만 먼저 훈련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밝혔다.

아시안컵에 대비한 축구대표팀의 공식 소집일은 12월 24일. 이에 앞서 예비 엔트리(50명) 제출일이 12월7일이고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일은 12월 28일이다. 조 감독으로선 예비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들을 조금 일찍 소집해 마지막으로 개인별 컨디션과 기량을 확인하고 나서 최종 엔트리를 내고 싶다는 바람이다.

◇"유병수-최성국, 가능성은 충분해!"= 조광래 감독은 한일전을 치르면서 K-리그 득점 선두(20골) 유병수(인천)에게 단 9분의 출전시간을 허락했다. 너무 적은 출전 시간 탓에 '유병수 카드'를 버리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았다. 하지만 조 감독은 "충분한 가능성을 봤다. 출전 시간은 적었지만 훈련하는 것을 보면서 아시안컵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고 칭찬했다.

◇"공격형 미드필더의 활약은 아쉬워…"=조 감독은 한일전을 앞두고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기성용(셀틱)의 중원 조합을 생각했다.

그러나 박지성이 무릎 통증으로 결장하고, 기성용은 경기 당일 허리 통증으로 선발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경험이 부족한 윤빛가람(경남)-신형민(포항) 조합을 선택했다.

조 감독은 "미드필더 1명이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측면 공격이 살아난다"며 "신형민과 기성용은 아직 박지성처럼 강하게 밀고 들어가서 부딪히는 능력은 부족하다. 미드필더 1-2명을 더 지켜보고 나서 최종 엔트리의 윤곽을 짜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연아, 아시아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 우먼'

美 여성스포츠재단 선정

'피겨여왕' 김연아(20·고려대)가 아시아인 사상 처음으로 여성스포츠재단이 제정한 '올해의 스포츠우먼'으로 뽑혔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1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연아가 올해의 스포츠우먼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성적을 바탕으로 여성스포츠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김연아는 볼링 선수 켈리 쿨릭과 휠체어 농구와 스키에서 활약하는 알라나 니콜스, 육상 선수 사냐 리처즈, 요트 선수 안나 투니클리프(이상 미국)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올해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다.

미국의 전설적인 여자 테니스 스타 빌리 진 킹이 1974년 설립한 여성스포츠재단은 1980년부터 프로와 아마추어를 각각 시상하다가 1993년부터는 개인과 단체로 나누어 올해의 스포츠우먼을 뽑아 왔다.

그동안 피겨 스타 미셸 콴(미국·1998년), 프로 골프선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2007년), 줄리 잉스터(미국·1999년) 등이 상을 받았다.

김연아는 상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인 수상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 김연아는 지난해에도 올해의 스포츠우먼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상을 받지는 못했다. /연합뉴스